

연중 제13주일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기도서 379면
 제1독서 : 열왕상 19, 16b, 19-21
 제2독서 : 갈라 4, 31b-5, 1, 13-18
 복음 : 루 가 9, 51-62

순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리
 인쇄인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칼론



『착각(錯覺)』

범영배 신부

“신부님, 요즘은 대단히 복잡하니까 여유가 생기면 성사도 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신자는 아직도 여유가 없이 복잡해서 성사도 못 보고 있는가 보

다. 가끔 신자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어린애들이 다 크지 않았기에’ 또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해 바쁘기 때문에’ 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등등의 이유를 들어 교회에 열심히 못해도 이해를 하라고 사정 아닌 강요를 한다. 흔히 하는 말로 ‘착각은 자유’니까 뭐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어찌 예수님께 직접 허락받아야 할 일을 내게 이야기 한단 말인가.

더욱이 큰 착각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인가. 그러나 내 주위의 열심히한 신자들을 볼 때 그들도 역시 어린애를 키우고, 사업도 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더욱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한분은 신앙생활-주님을 충실히 믿고 따르는 일-을 철저히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핑계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별개의 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분이다.

결코 우리의 일상생활이 신앙생활과 별개의 것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도 착각한 사람이 있었다.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기도 하고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때문에 예수께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잠시 동안이라도 중단될 수 없으며 미루어져서도 안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항상 주님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생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쟁기를 잡고 뒤를 차꾸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한들 주임신부)



한 섬 더 채워?

사람들의 욕심을 잘 표현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쌀을 아흔 아홉 섬 가진 사람과 한 섬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가진 사람더러 한 섬을 내놓으라고 하더라. 이유인즉, 있으나마나한 한 섬을 아흔 아홉 섬에 보태서 백 섬으로 채우자는 것이다. —영락없는 놀부 집사라 하겠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웃어 넘기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이렇게도 잔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요사이 프로 야구때문에 바쁜 사람들이 많다.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신문보기에 바쁘고, 심지어는 걸으면서도 라디오 중계 듣기에 경황이 없다. 스포츠지에 프로 바람이 불고 매스컴은 연일 부채질이니 「망국론」까지 들먹이며 개탄을 하는 사람도 있다. 수궁이 간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스트레스(분노?)를 해소할 길이 없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프로 경기는 생혹한 승부의 세계이기에 가끔 시비가 인다. 그 가운데에도 야구의 빈볼은 관중까지 흥분을 시키기도 한다.

빈볼(Been ball)이라 함은 ‘타자의 머리 옆을 스쳐가는 속구’를 말한다. 그러기에 빈볼은 상대방 선수에게 상당한 위협을 주는 것이어서 문제인 것이다. 고의성이 있다면 살인미수라고 보아서 지나칠까?

그런데 우리는 이 빈볼 현상을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이 문제다. 정정당당해야 할 경쟁에서 경쟁차원을 뛰어넘는 반칙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 문제나 경제문제, 그 어느 곳에서고 빈볼이 던져져서는 안된다. 모처럼 민의의 수렴이 기대되던 국회가 공전한다는 소리를 듣으니 더욱 씁쓸하다. 가진자의 나누는 모습이 아쉽다. 여유있게 좀 살자.

순정이 산책



장하다 복자여...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1,27)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과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학원사태와 단식사태에서 드러나는 민주화예의 요구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접하여 현시대의 표지를 알리고 또 확인하여야 할 교회의 사명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민주사회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존중되며 인격이 모든 사회제도의 주체이고 목적이며 기반이 되는 사회입니다.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25)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형제들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인권의 신장이 복음의 요구이며, 현재의 불행한 제반 사태들은 현정권의 비민주적 성격과 독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직 민주화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합니다.
2. 우리는 우리가 온 몸으로 거부하였던 유신체제와 그 말기적 증상이 오늘에 다시 재현되고 있음을 보면서 민족과 나라의 위기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4월 18일 원주에서 발표된 "화해를 위한 우리의 견해"를 재천명하며 이와같은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 가. 어떠한 죄목으로 처단되었건,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된 모든 양심범의 석방과 복권
 - 나. 자유언론의 회복에 대한 보장과, 유신체제 이래 언론계에서 추방된 해직 언론인의 복직
 - 다. 학원사태에 관련되어 제적 또는 처벌받은 학생과, 광주사태를 전후하여 강단에서 추방된 교수의 복학과 복직
 - 라. 이른바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반민주적인 악법과, 유신체제 이래의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모든 법률의 개정 또는 철폐
 - 마. 소급 입법에 의한 정치보복과 정치탄압을 목적으로한 정치규제의 철폐
 - 바. 원풍모방 사건 등 노동운동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석방과, 취업의 자유보장 및 노동운동에 대한 일체의 탄압중지 등
3.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정상적인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국회, 인권과 법의 정의를 지키고 실현하는 독립된 법원, 국민의 알고 알릴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는 언론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와의

장치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독재의 손에 통제되고 조종되면, 이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저항은 정당한 것입니다. 정치 권력은 공동선을 위한 봉사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특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그 정당성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당이 자기의 구실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야당은 오직 권력에 기생하여 그 합리화를 돕는 요식적인 집단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우리는 학생들의 진실에 찬 목소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부 인사들의 생명을 건 단식투쟁에서 제시된 호소가 그릇되어 모독되어서는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 이 시대의 양심과 진실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점점 심화되어 가는 학생들의 자해행위나 일부 인사들의 생명을 건 단식투쟁등에 동정과 위로를 전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하느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5. 우리는 특히 아직도 정치범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나, 건장한 민주적 비판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단되어 관제 공산주의자가 양산되고 있는 사태(부림사건, 민학련 민노련 사건, 한울회, 아랍회, 오송화 사건 등)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선언과 호소가 묵살되고, 폭력을 사용한 가해자가 석방되는 반면, 피해자가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는(원풍모방, 콘트롤레이타 사건 등)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법원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과, 법원이 검찰의 의견보다도 자의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데 우리는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6. 이제 우리는 최근 이 땅의 슬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의가 구현된 사회를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83년 6월 14일

전 주 에 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외 대리점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성지순례(국 내외)안내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어

☎ ② 2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또(덕배)

- 혼수(회갑)복감 | 도
- 특수 파티복 | 매
- 고급 칠구류 * 상
- 각종 솜 일체 | 상
- 커넨지

서 울 주 단

☎ ③0453, ⑥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국내 최초로 상판에 이어
몸체가구도 KS마크 획득

한 일 싱 크

전북 총대리점

- 주방설계
- 씽크대수리
- 가스렌지
- 주방용기

전주 중앙성당 정문 바로옆
전화 ①0841 야간 ④9874
박 안 당 (윤규)

이 땅에 빛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200주년을 앞둔 우리의 자세

김 병 환 신 부

내년 84년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에 우리 교회는 200주년을 앞두고 순교자현양과 한국 가톨릭 발전에 대해 상당히 집요한 반성과 모색이 이루어지고, 대 내외적으로 다방면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 저변에 우리 교회가 걸어온 200년간의 전통이나 역사의식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사나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풍토와 문화 속에서 소박하게 발전해온 힘이나 전통의 맥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땅에 깊이 뿌리질 내릴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모습마저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그 생명력을 키워 왔고 꽃을 피워 왔다. 죽음과 피를 부르는 숨막힘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깊게 넓게 심어 왔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숨을 쉬었던 역사적 전통이다.

근 100년 동안 피를 흘린 역사이기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라고 부른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순교에 대해서 “순교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및 표시로써 그리스도의 신비를 밝혀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심장이 멎고, 숨이 끊어지는 죽음은 순교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과 신비를 죽음으로써 증거하는 순교를 가장 완벽한 순교, 성사를 능가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우리 선조들은 200년 역사를 통하여 죽음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의 신비를 증거하였다. 가까운 우리 교구내 순교의 역사를 살펴 보자. 제사 문제로 빚어진 한국 최초의 박해인 신해박해가 1791년에 이곳 전주 지방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1801년 죽음의 행렬이 섰다는 숲정이에서의 죽음, 12세 소녀 이봉금(아나다시아)의 죽음, 22명의 복자님들이 치명하셨던 1866년의 병인 박해, 목이 잘리는 참수로, 목이 풀리는 교수형으로, 살이 찢겨나가는 육시형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죽어갔고, 한 가족의 일부가, 한 가족 전체가 몰살 당했다. 이러한 엄청난 참사의 순교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가슴 두근거리는 책임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 많은 빛을 갈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우리 선조들의 소박하고 힘 있는 신앙의 소산은 굳게 뭉쳐진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한 사랑이었다고 한다. 죽음과 기갈, 굶주림 속에서 그들은 한 형제처럼 생활을 나누었고 깊고 진실한 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로 나눔으로써 더욱 밀착되었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줄 아는 그분들... 그러기에 그분들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전통의 기반 위에서 치루어야 할 200주년 행사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 교회를 방향지우는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치루어야 할 2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우리 자신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하겠다. 그리고 반성해야 한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고, 값있는 옷을 입어야만 행세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신만을 앞세우는 이기심과 명예심이 팽배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아닌가.

마스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삭막함이 감도는 교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더욱이 물질이 풍요로움과 권력의 행사가 무질서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정신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

외로움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괴로와하는 우리들, 자신이 순교한다는 확신조차 없이 신음소리를 내며 폐쇄된 집단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짓밟는 삶 속에서 서로가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사는 우리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2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반성이며 회개인 것이다.

우리는 200주년 행사를 잘 치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모습마저도 잃어버릴 것이다.

200주년 행사는 우리 자신의 발전과 한국 교회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함께 기다리며 잘 준비하자.

(서학동 주임신부)

독일 치질약 재입하
하 이 덴

여드름 치료제 입하

전주 시민약국

☎ ④ 0009 • ③ 3338

약사 김 병 의(마넬로)

* 교향 자매님들께
특별봉사할

주부 슈퍼 마켓

야채류 · 식료 잡화 일절
신속 배달함

(이리 북부시장 내)

☎ ③ 7107

박 찬 희(논나)



코오롱 맨☆스타

전주 특약점

<호성맨하탄>

▲ 국민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

전주시 중앙동 3가 26(중앙동 풍년제과 앞)

전화 ⑧ 8415

김 돈 중(아드리아노)

□ 전주교구 200주년 예산

200주년기념 전주교구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기념성당 건립예산 제외)
 기념행사 25,150,000원 사목회의 3,606,000원
 기념사업 493,400,000원 정신운동 9,897,000원
 200주년 사무국 9,900,000원 총예산 541,953,600원

□ 200주년 모금을 위한 취지문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1984년으로 2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 스스로가 믿음을 찾아 얻었던 사실은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며 은혜였습니다.

그후 우리 교회는 100여년 동안 계속된 모진 박해 속에서 수만명의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쳐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증거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교구는 어느 교구보다 순교자들의 피로써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교구는 한국 최초의 방인 자치교구로서 우리들의 힘으로 성장된 교회입니다.

2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 우리 겨레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목숨을 바쳐 증거한 순교 선열들을 기리며, 후손에게 보다 성숙되고 좋은 씨앗이 되어 미래에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형제께서 청약하신 봉헌금은 200주년 기념사업비로서 순교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진요하게 쓰여집니다.

1983. 6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전주교구위원회

□ 어떻게 모금할 것인가?

성직자들 모금에 앞장서기로 결의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돈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200주년을 앞두고 본당 신부님들은 본당 신자들의 경제사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하지 못한다면 하는 것이 200주년을 위한 신부님들의 결의 동기였다.

200주년을 위하여 신부 1인당 50만원씩을 내년까지 봉헌하기로 하였으며, 구정과 추석의 미사예물을 전액 200주년 사업을 위하여 봉헌하기로 결의함으로써 200주년 전체 예산의 20%인 7천 3백만원을 성직자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수도자들도 성직자들과 뜻을 같이하여 200만원을 현금하기로 하였다.

각종 행사 현금 6천 7백만원

신앙대회, 유해 순회기도회, 전사회, 음악회 등 200주

년 기념행사에서 현금으로 6천 7백만원이 수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4억원이 문제

문제는 나머지 4억원을 신자들이 순수하게 200주년을 위하여 헌금해야만 200주년의 각종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어떻게 200주년 모금에 참여할 것인가?

각 본당 사무실에서는 200주년기념 전주교구 기념사업 봉헌금 청약서를 준비하고 신자 여러분의 신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정성을 서로 합칠 때 200주년의 모든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다립니다.

□ 호남교회사 연구소 발족

지난 5월, 전주교구는 그동안 절실히 요구되던 호남교회사 연구소를 발족하였다. 교구의 과거 역사를 발굴 정리하여 현실을 반성하고 재조명하여 미래의 교회를 설계하는 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역사라면 지극히 다행한 일이다. 이 연구소는 교구사 편찬 및 보존업무와 교회의 토착화를 위한 작업과 사적지 발굴 등을 맡게 된다. 김진소 신부를 주축으로 사계에 종사하는 몇 분의 교수로 구성된 운영위원과 연구원의 봉사에 의해 유지되며 한국교회사 연구소의 후원을 받게 된다.

위치는 해성학교 옆 정양소로 교구내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으며 영속되기를 바란다.

주소: 전주시 진북동 1026의 2

호남 교회사 연구소 ⑤ 9449

□ 200주년 제 1차 교구 사목회의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교구 사목회의가 20일 가톨릭 센터에서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성직자 50명, 수도자 46명, 평신도 54명 참석)

이날 회의에서는 사목회의 의안 12가지 중 세가지—교리교육, 성직자, 신심운동—의안이 진지하게 다루어졌다

사목회의의 의의와 목적

2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하느님 백성 전체 즉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같이 참여하는 사목회의를 소집하여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선교 3백년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사목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현상을 분석, 검토하여 다가올 시대를 향한 선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사목회의이다.

한국 천주교회의 사목회의는 마치 1960년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온 교회와 세계에 대하여 기여한 바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 회의를 통하여 내적으로는 쇠신되고 외적으로는 선교의 터전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의 토착화를 이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이 땅의 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출 · 대어
 웨딩드레스 · 약혼복 · 연주복 · 부케 · 신부화장 · 비데오 촬영
신부의 집
 동서판통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⑥ 6951
 정 인 기 (논지도)

K. S. 표시 허가공장
신흥 콘크리트
 ☎ ③6016 ⑥6415
 대표 이교성(요셉)
 시멘트, 벽돌, 블록, 보도블록, 철근 콘크리트근가, 철근 콘크리트관

*교우의 집
한일옷감
 옷감, 파티복, 침구류, 수의
 전화 ⑥ 7203
 구 남부배차장
 (영신당한약방 옆)
 조 성 순 (테레사)

혼수품 구입자(신자) 우대
금 동 상 회
 신도 금속 대리점
 양은, 스템, 일절 도산매
 전주시 전동 1가 290
 ☎ ② 1606
 김 연 욱 (수산나)

□ 교구사 ④



여 명 기(黎明記) ③

조선왕조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다. 종교는 사사로울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었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는 정교일치(政教一致)의 사회였다. 정치·사회·윤리·가족 등의 모든 제도가 유교의 관습과 법도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법규가 정치체제와 관계 밀착되어 있는 만큼 왕적인 절대권을 가지고 반대하거나 도전하는 자는 엄형중벌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천주교의 신앙생활과 대립되고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천주교와 유교와의 구체적인 대립은 정조(正祖) 15년(1791년) 신해년에 전라도 진산(珍山)에서 보게 되었다.

1791년 5월 윤지충(尹持忠)은 모친상을 당하여 8월 그름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북경주교의 지시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유언에 따랐다. 그는 어머니를 모든 예절을 갖추어 장례를 치렀으나 조상의 신주(神主)를 불사르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焚主廢祭—분주폐제) 이 소식은 서울에 파급되어 국사(國事)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천주교도 탄압을 친적으로 삼던 홍낙안이 좌의정인 채제공에게 보냈던 장서(長書)가 대담하고 있다.

“저 지충(持忠)의 무리는 감히 스스로 이적(夷狄) 금수(천주교도를 오랑캐요 금수로 일컬었음)에 붙어서 폐제(廢祭—제사를 폐지함) 하고도 그것도 부족하여 모친상을 당하여서는 혼백(鬼帛—초상장에만 쓰는 임시적인 신주)도 세우지 않고 조문(吊問)도 받지 않았읍니다. (역자주—사실은 조문은 받았다) 더우기 아버지의 사판(嗣版—신주를 말함)을 불태웠읍니다. ……친지가 있는 후에 이런 변괴가 있었습니까? 법률에 부조(父祖)의 사판(嗣版)을 상훼(傷毀)한 자는 시역지변(殺逆之變—부모나 임금에 살해하는 난리)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 일은 조금도 다를 바 없읍니다.”

이렇게 신해(辛亥)박해의 직접 원인은 곧 주자학(유교)적 예교(禮敎)질서의 일종인 조상제사 거부였다. 그것은 전통적인 가족질서와 사회조직을 뿌리 채 흔드는 행동으로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다. 효(孝)는 모든 덕의 근본으로, 제사를 통해서 실천되었기 때문에 후손이 없는 것은 최대의 불효였다. 정부가 조상제사 문제로 천주교를 배척하고 비판하는 요점은 첫째, 유교의 윤리규범인 군신 부자 부부의 옳바른 관계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멸륜패상(滅倫敗常)의 사도(邪道)요.

둘째, 제사를 폐지하고 유교사회의 예의와 풍속을 어지럽히는 사설(邪說)이요.

셋째, 부모와 군주 위에 천주의 절대적인 지위를 주장하여 아버를 아버로 여기지 않고(無父—무부),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는(無君—무군) 반국가사회집단인 불온단체이며,

넷째, 살기를 싫어하고 죽기를 좋아하여 죽음을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형정(刑政)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흉도(凶徒)라고 천주교도를 규정하였다.

홍낙안은 진산군수, 신 사원(申史源)에게 윤지충의 범행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문책하였다. 이에 신 사원은 윤지충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신주가 없다는 사실을 감영에 보고하였다. 윤지충과 그의 공모자인 권상연은 음력 10월 26일 진산군수 앞에 자수하였고 이어 전주 감영으로 압송되어 문초를 받았다. 윤지충은 법정에서 양보할 수 없는 자기 신앙의 입장을 밝혔다.

천주를 대부모로 받드는 이상 천주의 명을 준행치 않으면 결코 흠송의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사대부(양반)의 신주와 제향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이니 사대부에게 죄를 얻을 지언정 천주께 죄를 얻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히므로 유교규범의 실천과 천주교 신앙생활과의 타협할 수 없는 입장을 내세웠다.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鄭民始)는 지충은 다만 천주있는 줄만 알고 임금과 어머니 있는 줄은 모르며, 신주는 한쪽의 무용한 나무토막이라 하여 소각하고도 태연스러울 뿐더러 고문을 당하는 마당에서까지 극형을 당할 지언정 천주의 가르침은 배교할 수 없고 오히려 칼날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진술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한편 지충은 탄압의 이유의 다른 이면을 시사했다. 즉 일반 서민이나 가난한 양반이 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반역행위나 국가의 금령을 범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유교를 신봉하고 수호해야 할 행세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당하는게 아니냐고 정교일치(政教一致) 사회의 모순성을 꼬집었다.

윤지충의 사건을 엄책하도록 요구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양반계층의 유교 집단이었다. 오히려 정부는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전주 관찰사에게 처리하도록 분부하며 시일을 기다리지 말고 참수하여 민중이 보는 곳에 5일간 머리를 매달아 놓아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는 파상채제공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날이 11월 13일 신시(申時)였다.

진산사건 이후 가장 큰 시련은 배교자의 숙출이었고 특히 교회 설립의 주역들인 이 승훈, 정 약용, 이 존창, 권 일신의 배교였다. 특히 권 일신의 배교는 「가족적 박해」라는 뼈아픈 시련의 재연이었다.

유치원 교재 교구전문

중앙교육사

전화 (72) 8818번

이승호(다마스)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역 교우집!

금보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 해외여행 및 성지순례 안내

—형제들을 위해 성실한 봉사자로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내쇼날항공

전북지주주제원 이은자(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01(가톨릭센터 후문)

전화 ④ 2502·③ 4471

□ 순교 인물전 ④

무장(茂長)의 사도 최 여겸

최 여겸(汝謙. 마리아)은 1763년 전북 무장현 동음치면(茂長縣 冬音峙面, 현재 고창군 공음면)에서 반명(班名)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주교에 대한 말을 들었다. 신앙은 들으므로써 온다고, 하느님의 은총은 그에게도 인색하지 않았다. 그가 어려서부터 들어오는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는 눈 번 종이 갈밭에 든 것처럼 중잡을 수 없이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러던 중 윤 지충을 만나자 십년 가뭄에 비를 만난듯 천지를 새롭게 얻는 기쁨에 벅찼다. 만리 가시덤불 길이면 어떠랴. 진산의 지층 집을 드나들며 교리에 심취하고 입교하였다. 그러다가 충청도 내포지방의 한산(韓山)으로 장가를 틀게 되었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는 상당수의 신자들이 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참으로 잘 든 장가였다. 이 무렵 한산에서 몇 마장 거리인 홍산(鴻山)에는 충청도의 사도인 이 존창이 머물고 있었다.

1791년 신해박해 이후 박해의 아픔보다 더 쓰린 충격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배교였다. 충청도 신자들에게 충격적인 슬픔과 절망을 주며 존창은 배교하였다.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가 힘든 것을 깨달은 존창은 자기가 뿌린 씨앗들의 이슬 맺힌 눈망울을 위로 하고 그의 형에게 하직을 고하였다. 그리고 자리잡은 곳이 홍산이었다. 짓밟힌 잔디는 죽을 수 없다. 오히려 다시 고개를 들고 질긴 뿌리를 더 강하게 뻗어야 했다. 존창은 진열을 정비한 장수처럼 전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최 여겸은 바로 이때 존창을 만났고 신앙의 물기가 골수에 스며 믿음을 다져 주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신들린 사람처럼 은총과 기쁨의 삶을 전하는 일에 25시간을 뛰었다. 자신이 감격한 믿음의 호소는 듣는 이를 사로잡았다.

한편 이 땅에 최초의 신부인 중국 출신 주문모 신부가 1795년 정월 서울에 도착하여 전교하자 “금하면 금할 수록 널리 퍼져 나가며 씨앗이 떨어져 또 다른 씨앗을 내듯 6년 만에 전국의 신도가 만명에 이르렀다. 마귀가 심술 빼면 마귀가 아니다. 1800년 현명하고 온화한 정조가 승하하자 시국의 판도는 달라졌다. 11세의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증조모인 정순왕후 김씨가 섭정을 하게 되었다. 여자는 여자를 벗어나지 못할일까. 어린 순조의 왕권을 강화해야 함을 다급하게 느꼈다. 방황하는 인심도 안정시켜야 했고, 천주교도를 불구대전의 원수로 여겨 나라의 가장 큰 정적으로 들고 뛰는 양반 유학자들의 불만도 해소해야 했다. 더구나 정순왕후 김씨의 오빠인 김구주는 벽파(僻派)로서 오빠의 정적(政敵)인 시파(時派)

를 작살내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것은 정순왕후인 김태왕대비의 인간성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불안한 정권과 당쟁의 진압책으로 천주교도의 피가 제물로 필요하였다.

1801년 1월 11일 김태왕대비는 천주교 금압조치와 소탕령으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발표하여 박해에 불을 질렀다. 드디어 이 불길은 3월에 전주에까지 번졌다. 십상치 않은 김새를 눈치챈 최 여겸은 처가인 한산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벼룩이 뛰면 어디까지 뛰겠는가. 그는 4월 13일 체포되어 한산 관아로 끌려갔는데 그가 입교시킨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배교하여 그의 은신처를 고자질한 덕분이었다. 유다스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건가.

한산관장은 혹독하게 고문을 하였으나 그의 용기를 꺾을 아무런 칼도 없었다. 마침내 그의 고향인 무장 본관에게 압송되어 고문을 거듭해도 다문 입이 열리지 않았다. 무장현감은 어쩔 수 없이 전주감사에게 이송하였고 5월 16일 김계의 한 정훈(韓正欽)과 유 향겸의 노복인 김 천애(金千愛)와 함께 전주감사 김 달순(金達淳)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최 여겸에게는 80노모가 계셨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자 자기의 죽음을 애 통하게 괴로와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커다랗게 눈에 와 닿았다. 부모 앞에 죽어야 하는 불효자식이지만 유한이 없이 죽기 위해 어머니를 뵈오려 갈 허가를 청했지만 감사는 코웃음을 쳤다.

최 여겸은 자기의 죽음에 겁이 났다. 그것은 생명의 애착에서가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인 자기의 제헌에 부족함이 없을까 하는 두려움에서였다. 그가 한 정훈과 김천애의 감옥으로 이송되어 합류했을 때 그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고 신앙의 매서운 용기를 다지게 되었다.

드디어 7월 13일 형조(刑曹)에서 최후의 통첩이 내려다. 이 해에 체포된 전라도의 신자는 200명에 달했고 최 여겸이 전교한 자만 28명이나 되었다. 이들 중 영광고를 양반 출신으로 최 여겸의 제자인 이 화백은 자기 고향에서 참수되었다. 또 최 여겸의 조카이며 금노라고도 부르는 최 일안 역시 전주에서 형을 받고 죽었다.

최 여겸은 전국에서 소(牛)시장으로 유명한 고향땅 개갑(開甲) 장터에서 7월 19일 39세의 나이로 참수되었다. 7월은 우시장의 절정이었다. 장꾼들 앞에서 처형된 것은 군중에게 경각심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장안의 소메도 최 여겸의 죽음을 구슬뜨게 울어 주었다.

범모약국

가톨릭 센터 동편

☎ 5319

김영춘(아오스당)

□ 희소식

독사뱀 물린 사람
백발백중(五代秘)

전문치료 단시간 완쾌
연락처-전주시 전미동 1가 474번지

전달리 시내버스 종점
정미소 뒷집
전화 5-3544
송준의(발라바)

□ 특수자연식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센터

전화 ☎ 3032

특수안경, 표시없는 다초
점 조절렌즈, 가벼운 렌
즈, 얇은 렌즈를 질에서나
값에서나 정성을 다해드립
니다.



구역전 오거리

윤종순(베드로)



□ 200주년 기념

전주교구 학생 교리경시대회 예고

한국 선교 2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신조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그분들의 순교정신을 본받고자 아래와 같이 교리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교구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부모님들과 각 본당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때-83년 8월 21일(일) 2. 곳-각 본당에서

3. 대상 및 범위

- ① 국민학교: 전주교구내 성지(주일학교부 교재 참조)
- ② 중학교: 전주교구내 성지, 초대 전주교구 본당 및 간략한 한국교회사(중·고등부 교재 참조)
- ③ 고등학교: 위 내용을 보다 자세하고 깊이 연구(중·고등부 교재와 이원순 교수가 쓴「한국교회사」중 P.1~P.134 참조)

4. 본 경시대회를 위해 제작한 주일학교부 교재와 중·고등부 교재는 각 본당으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VIENNA SCHUBERT-DUO 초청음악회

—내일 중앙 성당에서

200주년 전주교구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Vienna Schubert-Duo 초청음악회가 내일 저녁 전주 중앙 성당에서 열린다.

제 1부에서는 미사와 함께 그레고리안 성가를 제 2부에서는 다수의 성음악을 듣게 될 이번 음악회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신비 속에 깊게 잠기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음악회를 위하여 도움을 주신 전주교구 의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입장권(1천원)은 본당 사무실에서 구입

□ 가톨릭 센타 제 2기 영세식

지난 6월 18일에 가톨릭 센타에서는 제 2기 예비신자 교리반 영세식이 박 정일 주교님 주례로 74명에게 베풀어졌다.

이번 교리강좌는 교구청 각 구장신부님들의 윤번제로 진행되었으며, 영세식에는 전주 시내 본당의 신부님들과 수녀님·회장님들께서 오시어 이들과 상면하고 축하해주는 정겨운 모습이였다. 1년동안 가톨릭 센타 영세자는 208명이 된다.

□ 가톨릭 센타 예비신자반 모집

본당에서 하는 예비신자 교리반에 나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지성인들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국 주관 가톨릭 센타 예비신자 교리반에서는 제3기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7월 25일까지 접수처-교육국 장소-가톨릭센타 개강일-8월 초순

□ 교구장 박 정일 주교님 출국

오는 30일 교구장 박 정일 주교님께서 출국하신다. 한달 보름가량 주교님께서서는 해외 교포사목 총재주교로서 세계 각국에서 사목하시는 한국 신부님들을 사목 방문하신다.

특별히 전주교구 신부로서 교포사목을 하시는 모든 신부님들을 방문 위로하시게 된다. 여행하시는 동안 주교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자.

요심이(516) 김병오



재즈 크라식



상당수준의 교착본(체르니, 쇼나타) 소화자에게 아보없을 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희소식

피아노 반주법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복은행 노송동지식당

칼라 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금번 급성사진 45분 완성 칼라 현상 인화기를 신설하고 83년 5월 23일부터 가동하오니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싸이즈는 3×5, 5×7, 8×10등 우량한 사진을 처리

미영칼라현상소

☎ ③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프란치스코 수도회 피정안내

프란치스코회가 주최하는 성소 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1983년 8월 10일(수)-13일(토)

대상: 일반 직장인(남자), 대학생(남자).

연락처: 300 대전시 중구 목동 96-3

프란치스코 수도원 신 베드로 수사

☎ 대전 22-1722

공지사항

1. 방송안내(성가를 들으며) : 이리 기독교 방송(중파 1314KHz) 저녁 10시 10분~30분(7월 1일부터 주일만 제외)-교구 홍보용 제공
 2. 가정법원(혼인문제) : 27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교구청
 3. 제3차 M·E 수감부부 재모임 : 7월 2일 오후 3시, 장소-군산 월명동성당(M·E 임원부부께서도 참석요망)
 4. 7지구 교리교사 회합 : 7월 2일 오후 4시 30분, 장소-환일성당
 5. 월요일성서 : 매 월요일 오후 8시~9시, 가톨릭 센터 3층, 범위-이사야
- **축! 영명 :** 섬 베드로, 바오로(29일)-김 후생, 김 영규, 이 대권, 서 석기, 김 병엽, 김 영신, 박 창신
 임 기봉, 문 규현, 이 순성, 김 회남, 박 인호, 정 양현 신부님
 성 토마 사도(7월 3일)-서용복, 김정원, 이재후, 이종원, 김성진 신부님

(중앙)

수입 신부 문정협
 보좌 신부 함철원
 사도 회장 김인협
 전화 ②1711~3

1. 이번주 구역모임 : 10·11·16·19·26번
 2. 중학교 교리반 : 7월 3일부터 주일, 학생미사후(10시)
 3. 젊은이의 모임 : 일시-29일 오후 8시, 장소-강당, 강사-김정원 신부, 주제-세상안에 있으나 세상의 것은 아닌 사람들
 4. 6월 27일부터 월요일 저녁미사 없습니다
 5. 성서 피정 : 주제-말씀과 성령, 회비-1천원, 중식 치킴, 일시-28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앙성당
 6. 목주기도 1백만단 바치기 : 21일까지 68,200단 봉헌
 7. 성전 신축헌금 신입해 주신분 : 한광수(5만원), 박봉수(3만원), 익명(10만원), 익명(1만원), 추가신입-이봉래(200만원), 박남주(20만원), 교체상(150만원) 문지식(100만원), 박영근(50만원), 김동욱(70만원) 방춘원(30만원)
 8. 신축금 수불현황 : 총공사비-2억5천만원
 진입액-190,417,600원, 납입액-62,387,631원
 지출액-78,713,100원
- **지난주 봉헌금 :** 1,135,800원 **교무금 :** 548,000원

(노송동)

신부 ②0969
 수·사 ②7032
 수입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1. 유아영세식 : 28일 오전 10시 30분 미사후
 2. 사목방문에 협조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3. 부녀자 피정 :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4.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5. 아파트 소식 : ①요셉회 켈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우아아파트 성서모임 : 매주<수> 오전 10시
 장소-이도미니카세 맥, 전화: 72-1410
 ③우아아파트 레지오 회합 : 매주<금> 오후 3시
 장소-장명회(울리안나) 단장 맥
 ④아파트 지역의 구역장 명단 성당내에 게시하였음
- **지난주 봉헌금 :** 364,490원 **아파트 :** 57,750원
지난주 교무금 : 546,500원 **아파트 :** 107,000원

(덕진)

신부(3) 2182 수입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진복회 켈레회의 : 공식미사 후
 2. 청년연합회 야외미사 : 7월 1일 저녁 8시 덕진 총혼담
 3. 사도회 상임위원회 : 7월 2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4. 「미사해설」 영화상영 : 28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5. 「본당 구역, 반, 재조정」 7월부터 형제회 모임 실시 구역장, 반장(임명) 명단은 별지로 발표
 6. 예비자 인도·교리강좌 수강신청 : 6월 말까지 사무실에 신청, 7월 개강 예정
 7. 복사단 창립 : 7월 2일 오후 4시
 보미사 신청한 어린이는 꼭 참석하세요
 8. 정양현(베드로) 신부님 영명축일 : 29일 축하합니다
 축하식-오늘 공식미사 후
 9. 할머니 교리 정정합니다 : 수요일에서~화요일로
- **지난주 봉헌금 :** 454,770원 **교무금 :** 765,000원

(복사)

전화 ③5238 수입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료

1. 사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첫 켈레 6 : 1일 저녁 8시, 첫 켈레 7 : 2일 저녁 8시
3. 교황주일 특별헌금 : 다음주일
4. 베드로·바오로 대축일 : 29일 베드로 바오로 본명이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합동으로 미사봉헌(28일까지 접수)새벽 5시 30분미사

5. 어머니성가대 성가연습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어머니를 많이 나와 배웁시다 지도-이일규 선생
 6. 주일미사는 신자의 의무
 미사시간 : 주일-새벽 5 30분, 오전 9시-학생미사 10시 30분-공식미사, 오후 3시-어린이, 저녁 8시 평일-월요일 오전 10시 어머니미사, 화요일-저녁 8시, 수요일 새벽 5시 30분, 목·금·토요일-저녁 8시
 7. 금주전례 : 해설-이명래, 독서-①윤베로니카 ②이충원
 차주전례 : 해설-최경순, 독서-①강준희 ②은희영
- **지난주 봉헌금 :** 466,620원

(서화동)

전화 ②2276 수입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축! 영세 : 25명
 2. 사도회 켈레회 : 7월 4일 저녁 8시 30분
 3. 유아세례 : 매월 첫째주일 공식미사 전(9시 30분)
 4. 자모회 모임 : 7월 5일 오전 10시, 회의실
 5. 할머니회 성지순례 : 28일 9시 출발, 행선지-천호공소·여산 나바위(지참물-묵주, 도시락)
 6. L. M. 옥외행사 : 오늘 12시 성당에 집결
 장소-구이 성덕리, 묵주 도시락 치킴
 7. 재대 꽃대 봉헌 : 박승영(1만원)
 8. 차주전례 : 독서-①박형식 ②김낙균
 신자들의 기도-차상열·윤정순·박장춘
- **지난주 봉헌금 :** 279,390원 **교무금 :** 185,000원

(숲정미)

전화 ②7366 수입 신부 김중길
 수·화 ②9567 사도 회장 김승섭

1. 사도회 켈레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요한회 켈레회·신영세자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3. 구역 정 부회장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4. 평신도 갈렙(다음주) : 이엘리사벳
 5. 금주전례 : 해설-홍성조, 독서-①김종환 ②송용호
 기도-이강호·박병열
 차주전례 : 해설-김경주, 독서-①강원모 ②김영채
 기도-정주복·홍성조
- **지난주 봉헌금 :** 193,020원 **교무금 :** 436,230원

(전동)

신부 ②6208 수입 신부 김병열
 전화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 ※ **축! 영명 :** 본당신부님, 축하식-오늘 공식미사 후 축하연(29일)-사무실에 문의 바람
1.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 30분
 2. 성가정회 : 7월 1일 12시
 3. 사도회·유아세례 : 다음주
 4. 아나운서 모임 : 미사해설을 위한...
 5. 첫영성체 교리 : 매일 오후 6시~7시, 강당
 6. 다들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주, 독서-①김동연 ②이주영
 공식미사 : 해설-이준영, 독서-①신일균 ②안득수
 저녁미사 : 해설-김윤선, 독서-①정동희 ②정종엽
- **지난주 봉헌금 :** 629,240원 **교무금 :** 907,50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수입 신부 김영일
 수녀 ②4804 사도 회장 황희상

1. 오늘주일은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2. 29일은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 : 아침미사 많이 참석
 3. 7월 2일 오후 2시에 기사회가 있습니다
 4. 교황주일(7월 3일) : 교황님을 위해 기도와 헌금을...
 5. 사도회 켈레회 : 다음주에 있습니다
 6. 축! 영세 및 첫 영성체 : 18일 센터에서 8명, 본당에서 25명, 첫영성체 어린이들에게 축하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53,035원 **교무금 :** 324,000원